

“새해는 자원화·청정화·차별화 본격 추진의 해”

양돈협회, 신년 기자간담회 통해 새해 사업 추진 목표 밝혀



양돈협회는 지난 12월 27일 제2축산회관 6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무자년 새해에도 가축분뇨 자원화와 소모성질한 극복, 국산 돼지고기 차별화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무자(戊子)년 새해를 ‘자원화·청정화·차별화’를 본격 추진하는 해로 다짐했다.

양돈협회는 지난 12월 27일 제2축산회관 6층 회의실에서 협회 추진실적 및 향후 중점 추진사업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무자년 새해에도 가축분뇨 자원화와 소모성질한 극복, 국산 돼지고기 차별화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생산안정제, 사료안정기금 도입... 생산기반 제도개선돼야

김동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07년이

가축분뇨자원화·소모성질한 극복·국산 돼지고기 차별화 사업의 원년이었던 만큼, 2008년에는 이들 3대 과제 해결을 위해 더욱 고삐를 조이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환 회장은 새해 양돈산업을 전망하면서 “08년 돼지 값은 지육 kg당 기준 3천200원 이상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당수 양돈농기들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생산안정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등도 돼지 값 하락 시 정부의 대책이 있다며 국내 양돈자급률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돼지 생산안정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양돈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양돈산업의 발전을 다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료가격 인상 문제는 분뇨처리 문제 못지않게 가장 큰 고민거리다”며 “생산자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사료자원 터전을 개발하기 위한 기금마련 및 한국형 사료안정기금 등을 통해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PRRS 안정화, 돈열 청정화 사업 본격 추진

이와 함께 양돈협회는 소모성질환 극복을 위해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안정화 사업과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돈가 안정화를 중점적으로 도모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양돈농가의 모돈당 연간출하두수(MSY) 평균 13마리 수준을 MSY 18두까지 끌어올리고 돈열 청정화를 통해 일본으로의 수출 퇴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07년 시범사업 실시를 바탕으로 현재 전국에 8개 업소가 인증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돼지고기 신뢰구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년 소시모 인증 20개 우수 돼지고기 브랜드와 양돈협회 소

속 일반브랜드 혹은 비 브랜드 돈육 등을 포함하여 약 120여개 업체로 확대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양돈협회는 양돈 자급률 설정 및 생산안정제 도입을 통한 안정화 대책 수립 ▲한국형 사료안정기금 도입을 통한 생산비 절감방안 마련 ▲PRRS 안정화사업 추진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 ▲양돈장 HACCP 사업 확대 ▲양돈농가 현장 교육사업 강화 ▲지자체 중심 가축분뇨 처리대책 수립 ▲가축분뇨 공동·공공처리 확대에 위탁처리 체계 도입 ▲분야별 특별대책위원회 운용 및 정책대안 제시 ▲식품위생법 하위법령 정비를 통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를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 등을 주요 핵심사업으로 밝히고 2008년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동환 회장은 “양돈산업이 위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돈산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정부의 대책도 달라진다는 점”이라면서 “이제는 생산자들도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경영허실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전력을 다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양돈**